

본 논문은 2002년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근로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2002. 10.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 동 부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 구 원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I. 조사의 배경	1
II. 조사방법과 대상	2
III. 조사 결과	4
1.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4
2.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8
3.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13
4.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19
5.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27
6.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34
7.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주5일 근무제 확산전망 ...	40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 치는 영향	46
IV. 요약 및 시사점	51
V.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홍보	55
<부 록> 설문지	58

〈표목차〉

<표 1> 조사 대상 표본의 분포	3
<표 2>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6
<표 3>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11
<표 4>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16
<표 5>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23
<표 6>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30
<표 7>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38
<표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확산전망	44
<표 9>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49

〈그림목차〉

〈그림 1〉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7
〈그림 2〉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12
〈그림 3〉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17
〈그림 4〉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24
〈그림 5〉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31
〈그림 6〉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39
〈그림 7〉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주5일 근무제 확산전망	45
〈그림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 에 미치는 영향	50

I. 조사의 배경

-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동안 여러 민간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되었지만 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에 그침.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기	찬성 비중
리크루트,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장인	2002	92.0%
국정홍보처	일반국민	2001	74.1%
MBC	일반국민	2001	74.2%

- 조사를 수행한 기관과 조사시점에 따라 결과가 약간씩 다른 점은 있었으나 2001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 75% 내외의 찬성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입법안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묻는 설문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음.
- 2002년 8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으며(2002. 7. 노동부 조사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의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노사협상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 다시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여론조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층화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1,000개의 유효표본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II. 조사방법과 대상

- 본 여론조사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취업지위별, 근로형태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주5일 근무제 인지도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성향을 살펴보았음.
- 조사방법: 전화를 통한 인터뷰
- 조사규모: 1,000명의 유효샘플을 얻을 때까지 조사(전국 단위)
- 조사시기: 2002년 8월 19일 ~ 2002년 8월 23일
- 표본 오차: $\pm 1.5\%$ 오차구간 적용
- 표본 추출 방법: 층화표본 무작위 추출법
- 조사기관: IRC(Intel Research Center)
- 조사대상은 지역별은 인구기준을, 성별과 연령별은 비슷한 비중을 맞추려 노력했으며 그 외 변수는 무작위 추출에 따른 분포를 가지고 있음.
-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22.1%, 경기지역이 1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경상남북도 지역이 12.6%, 전라남북도 지역이 8.5% 등의 비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49.4%, 여성 50.6%의 분포
-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에 대해 약 20~28%의 분포를 각 연령구간마다 가지도록 분포
- 그리고 이러한 성별 연령별 비중도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샘플링했음.
- 소득별로는 151~200, 201~300, 300만원 이상이 고루 약 23%를 기록했고 101~150과 100만원 이하는 약 13~14% 정도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고졸이 44.6%로 가장 많고 대졸이상이 31.4%로 분포
- 직업별로는 미취업자가 46%로 나타나 여성 표본의 비중을 맞추는 과정에서 약점을 드러냈고 근로자는 27.9%로 나타남.
- 근로형태별로는 사무직이 19.6%, 생산직이 8.3%를 기록했고 그 외 기타 직종이 72.1%로 분포되었음.

<표 1> 조사 대상 표본의 분포

(단위: %)

거주지역별		성별		월 가구 소득별	
서울시	22.1	남성	49.4	100 만원미만	12.9
부산시	8.2	여성	50.6	101~150 만원	14.1
대구시	5.3	합계	100	151~200 만원	23.0
인천시	5.3	연령별		201~300 만원	23.6
광주시	2.9	20 ~ 29세	23.8	300 만원이상	23.9
대전시	2.9	30 ~ 39세	25.8	무응답	2.5
울산시	1.9	40 ~ 49세	22.0	합계	100
경기 시지역	17.8	50세이상	28.4	학력별	
군지역	1.5	합계	100	중졸이하	19.4
강원 시지역	2.5	성/연령별		고 졸	44.6
군지역	0.8	남성20대	12.2	전문대졸	4.6
충청 시지역	4.0	30대	13.3	대졸이상	31.4
군지역	3.2	남성40대	11.2	합계	100
전라 시지역	5.3	50대	12.7	직업별	
군지역	3.2	여성20대	11.6	미취업자	46.0
경북 시지역	4.4	30대	12.5	고용주	2.5
군지역	1.5	여성40대	10.8	근로자	27.9
경남 시지역	4.7	50대	15.7	기 타	21.7
군지역	1.6	합계	100	농축산임업	1.9
제주 시지역	0.7			합계	100
군지역	0.3			근로형태별	
합계	100			생산직	8.3
				사무직	19.6
				기 타	72.1
				합계	100

III. 조사 결과

1.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 주5일 근무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준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잘안다」는 34.3%, 「조금안다」는 57.1%, 「모르겠다」는 8.6%를 보임.

-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이 남성의 93%, 여성의 90%가 주5일 근무제의 논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의 경우, 「잘안다」는 40.1%, 「조금안다」는 52.8%, 「모르겠다」는 7.0%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잘안다」는 28.6%, 「조금안다」는 61.3%, 「모르겠다」는 10.0%를 보임.

- 연령별로는 49세 이하에서는 모두 90% 이상의 인지도를 나타냈음.

 - 20~29세의 경우, 「잘안다」는 31.7%, 「조금안다」는 60.9%, 「모르겠다」는 7.4%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잘안다」는 40.1%, 「조금안다」는 54.8%, 「모르겠다」는 5.0%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잘안다」는 40.6%, 「조금안다」는 52.1%, 「모르겠다」는 7.3%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잘안다」는 26.3%, 「조금안다」는 59.9%, 「모르겠다」는 13.8%를 보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5일제 도입의 논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졸이하의 경우, 「잘안다」는 20.9%, 「조금안다」는 61.1%, 「모르겠다」는 18.0%를 보임.
- 고졸의 경우, 「잘안다」는 33.4%, 「조금안다」는 58.9%, 「모르겠다」는 7.8%를 보임.
- 전문대졸의 경우, 「잘안다」는 21.6%, 「조금안다」는 73.7%, 「모르겠다」는 4.7%를 보임.
- 대졸이상의 경우, 「잘안다」는 45.8%, 「조금안다」는 49.8%, 「모르겠다」는 4.4%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사무직근로자들의 인지도는 96.2%에 도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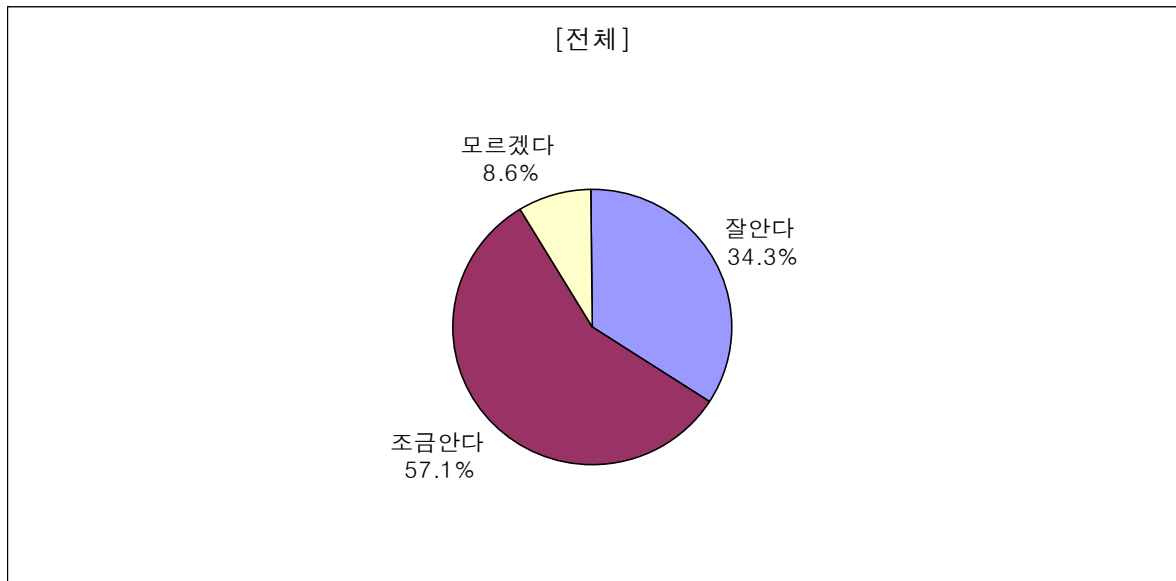
- 미취업자의 경우, 「잘안다」는 29.0%, 「조금안다」는 61.0%, 「모르겠다」는 10.0%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잘안다」는 42.1%, 「조금안다」는 50.7%, 「모르겠다」는 7.2%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잘안다」는 44.0%, 「조금안다」는 50.8%, 「모르겠다」는 5.2%를 보임.
- 기타의 경우, 「잘안다」는 33.7%, 「조금안다」는 56.8%, 「모르겠다」는 9.5%를 보임.
- 농축산임업의 경우, 「잘안다」는 17.6%, 「조금안다」는 68.6%, 「모르겠다」는 13.8%를 보임.

<표 2>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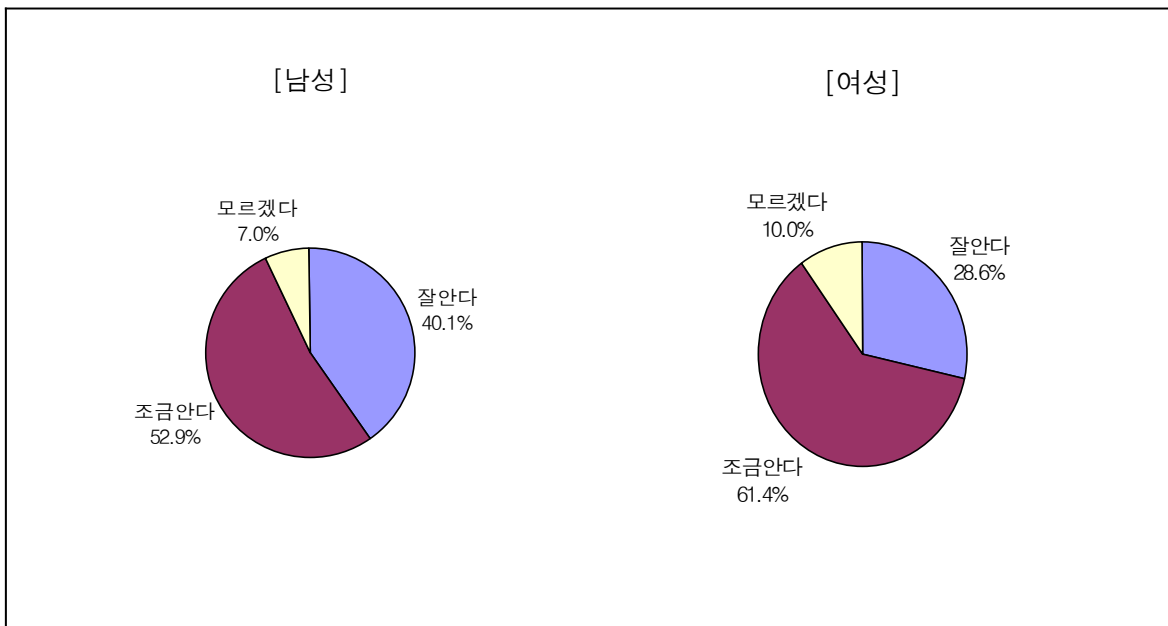
(단위: %)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잘안다	조금안다	모르겠다	합 계
전 체	34.3	57.1	8.6	100
성 별				
남 성	40.1	52.8	7.0	100
여 성	28.6	61.3	10.0	100
연령별				
20 ~ 29세	31.7	60.9	7.4	100
30 ~ 39세	40.1	54.8	5.0	100
40 ~ 49세	40.6	52.1	7.3	100
50세이상	26.3	59.9	13.8	100
학력별				
중졸이하	20.9	61.1	18.0	100
고 졸	33.4	58.9	7.8	100
전문대졸	21.6	73.7	4.7	100
대졸이상	45.8	49.8	4.4	100
직업별				
미취업자	29.0	61.0	10.0	100
고용주	42.1	50.7	7.2	100
근로자	44.0	50.8	5.2	100
기 타	33.7	56.8	9.5	100
농축산임업	17.6	68.6	13.8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32.7	58.7	8.7	100
사무직	48.8	47.5	3.8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23.9	59.1	17.0	100
101~150 만원	36.9	53.7	9.4	100
151~200 만원	33.8	56.2	10.0	100
201~300 만원	33.1	62.2	4.7	100
300 만원이상	40.8	53.8	5.4	100
무응답	27.2	59.2		

<그림 1> 주5일 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성 별>



2.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단순히 법정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법개정안의 논의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시에 휴가휴일제도의 개선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보았음.
- 전체적으로 76.3%의 국민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정 수준 알고 있었음.
 - 「잘안다」는 21.6%, 「조금안다」는 54.7%, 「모르겠다」는 23.7%를 보임.
- 성별로는 남성이 81.7%의 인지도를 보여 여성의 71.7%보다 앞서 주5일 근무제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이는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많은 요인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잘안다」는 28.9%, 「조금안다」는 52.8%, 「모르겠다」는 18.3%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잘안다」는 14.5%, 「조금안다」는 56.6%, 「모르겠다」는 28.9%를 보임.
- 연령별로는 30-49세 주노동력 계층에서 약 81-82%의 높은 인지도를 보였음.
 - 20~29세의 경우, 「잘안다」는 21.6%, 「조금안다」는 55.9%, 「모르겠다」는 22.5%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잘안다」는 25.8%, 「조금안다」는 56.4%, 「모르겠다」는 17.9%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잘안다」는 28.5%, 「조금안다」는 52.6%, 「모르겠다」는 18.8%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잘안다」는 12.5%, 「조금안다」는 53.9%, 「모르겠다」는 33.6%를 보임.
- 학력별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주5일제 논의의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졸이하의 경우, 「잘안다」는 8.0%, 「조금안다」는 51.5%, 「모르겠다」는 40.5%를 보임.
- 고졸의 경우, 「잘안다」는 22.5%, 「조금안다」는 52.9%, 「모르겠다」는 24.6%를 보임.
- 전문대졸의 경우, 「잘안다」는 6.1%, 「조금안다」는 65.7%, 「모르겠다」는 28.2%를 보임.
- 대졸이상의 경우, 「잘안다」는 31.0%, 「조금안다」는 57.7%, 「모르겠다」는 11.3%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고용주들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생산직과 사무직근로자들의 인지도는 약 85-8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 미취업자의 경우, 「잘안다」는 14.1%, 「조금안다」는 56.5%, 「모르겠다」는 29.4%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잘안다」는 32.2%, 「조금안다」는 49.6%, 「모르겠다」는 18.2%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잘안다」는 32.0%, 「조금안다」는 53.4%, 「모르겠다」는 14.6%를 보임.
- 기타의 경우, 「잘안다」는 23.5%, 「조금안다」는 54.5%, 「모르겠다」는 22.0%를 보임.
- 농축산임업의 경우, 「잘안다」는 15.9%, 「조금안다」는 41.5%, 「모르겠다」는 42.6%를 보임.

○ 소득수준별 분석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잘안다」는 9.9%, 「조금안다」는 42.0%, 「모르겠다」는 48.1%를 보임.
- 101~150 만원의 경우, 「잘안다」는 20.9%, 「조금안다」는 52.0%, 「모르겠다」는 27.1%를 보임.
- 151~200 만원의 경우, 「잘안다」는 24.3%, 「조금안다」는 56.3%, 「모르겠다」는 19.4%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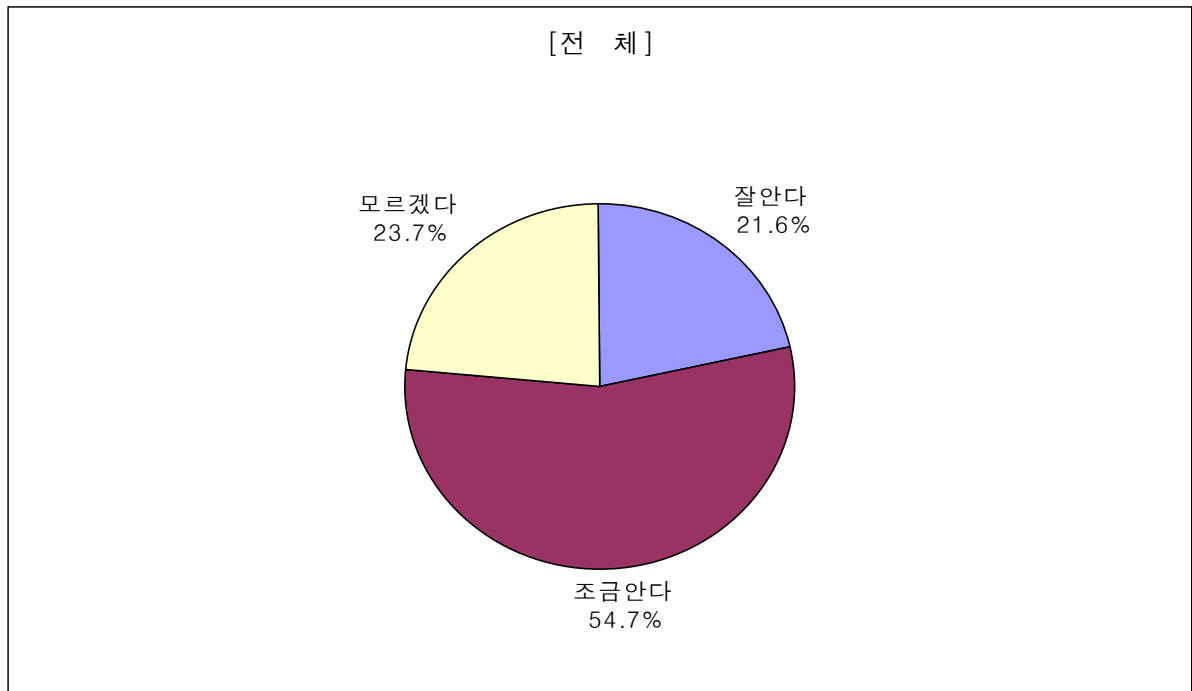
- 201~300 만원의 경우, 「잘안다」는 22.9%, 「조금안다」는 58.9%, 「모르겠다」는 18.1%를 보임.
- 300만원 이상의 경우, 「잘안다」는 26.3%, 「조금안다」는 55.1%, 「모르겠다」는 18.6%를 보임.
- 무응답의 경우, 「잘안다」는 4.0%, 「조금안다」는 78.1%, 「모르겠다」는 17.9%를 보임.

<표 3>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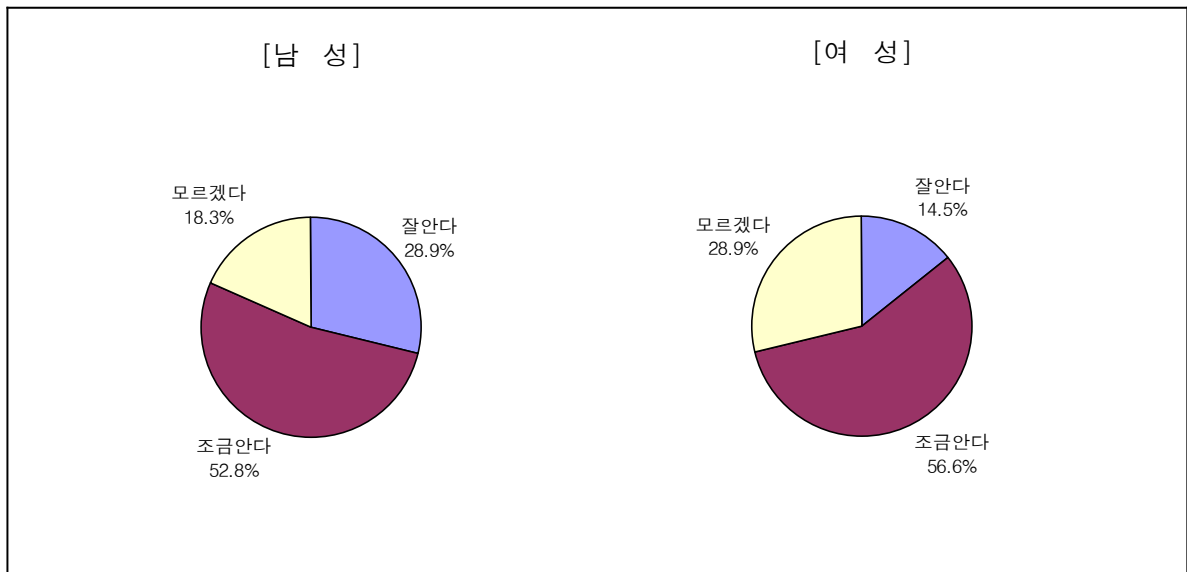
(단위: %)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잘안다	조금안다	모르겠다	합 계
전 체	21.6	54.7	23.7	100
성 별				
남 성	28.9	52.8	18.3	100
여 성	14.5	56.6	28.9	100
연령별				
20 ~ 29세	21.6	55.9	22.5	100
30 ~ 39세	25.8	56.4	17.9	100
40 ~ 49세	28.5	52.6	18.8	100
50세이상	12.5	53.9	33.6	100
학력별				
중졸이하	8.0	51.5	40.5	100
고 졸	22.5	52.9	24.6	100
전문대졸	6.1	65.7	28.2	100
대졸이상	31.0	57.7	11.3	100
직업별				
미취업자	14.1	56.5	29.4	100
고용주	32.2	49.6	18.2	100
근로자	32.0	53.4	14.6	100
기 타	23.5	54.5	22.0	100
농축산임업	15.9	41.5	42.6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25.7	59.0	15.3	100
사무직	34.7	51.0	14.3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9.9	42.0	48.1	100
101~150 만원	20.9	52.0	27.1	100
151~200 만원	24.3	56.3	19.4	100
201~300 만원	22.9	58.9	18.1	100
300 만원이상	26.3	55.1	18.6	100
무응답	4.0	78.1		

<그림 2>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성 별>



3.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동반되어 전체적인 휴가·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축소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53.8%가 「찬성」, 33.1%는 「반대」, 13.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서 과반수 정도가 휴가·휴일제도의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성이 약간 높은 찬성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찬성」은 55.6%, 「반대」는 34.3%, 「잘 모르겠다」는 10.1%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찬성」은 52.1%, 「반대」는 32.0%, 「잘 모르겠다」는 16.0%를 보임.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을 보이고 있음.

- 20~29세의 경우, 「찬성」은 60.3%, 「반대」는 30.5%, 「잘 모르겠다」는 9.2%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찬성」은 59.2%, 「반대」는 32.0%, 「잘 모르겠다」는 8.8%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찬성」은 51.4%, 「반대」는 33.3%, 「잘 모르겠다」는 15.2%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찬성」은 45.4%, 「반대」는 36.1%, 「잘 모르겠다」는 18.5%를 보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음.

- 중졸이하의 경우, 「찬성」은 41.3%, 「반대」는 30.5%, 「잘 모르겠다」는 28.2%를 보임.
- 고졸의 경우, 「찬성」은 54.3%, 「반대」는 33.5%, 「잘 모르겠다」는 12.2%를 보임.
- 전문대졸의 경우, 「찬성」은 66.6%, 「반대」는 31.2%, 「잘 모르겠다」는

2.2%를 보임.

- 대졸이상의 경우, 「찬성」은 59.0%, 「반대」는 34.5%, 「잘 모르겠다」는 6.5%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도 놀랍게도 근로자들의 60%가 찬성함으로 가장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주들의 경우 44.8%만이 찬성을 보이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지만, 고용주들의 경우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응답자들이 이 변화에도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됨.

- 미취업자의 경우, 「찬성」은 52.8%, 「반대」는 30.1%, 「잘 모르겠다」는 17.1%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찬성」은 44.8%, 「반대」는 48.2%, 「잘 모르겠다」는 7.0%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찬성」은 60.0%, 「반대」는 31.3%, 「잘 모르겠다」는 8.7%를 보임.
- 기타의 경우, 「찬성」은 49.2%, 「반대」는 40.6%, 「잘 모르겠다」는 10.2%를 보임.
- 농축산업업의 경우, 「찬성」은 53.0%, 「반대」는 26.8%, 「잘 모르겠다」는 20.2%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이나 사무직에 상관없이 약 60%가 전체적인 휴가·휴일제도의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직의 경우, 「찬성」은 59.2%, 「반대」는 27.6%, 「잘 모르겠다」는 13.2%를 보임.
- 사무직의 경우, 「찬성」은 60.4%, 「반대」는 32.9%, 「잘 모르겠다」는 6.7%를 보임.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조정의 방향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찬성」은 37.7%, 「반대」는 32.3%, 「잘 모르겠다」는 30.0%를 보임.

- 101~150 만원의 경우, 「찬성」은 53.5%, 「반대」는 30.4%, 「잘 모르겠다」는 16.1%를 보임.
- 151~200 만원의 경우, 「찬성」은 51.2%, 「반대」는 34.8%, 「잘 모르겠다」는 14.0%를 보임.
- 201~300 만원의 경우, 「찬성」은 59.2%, 「반대」는 34.9%, 「잘 모르겠다」는 5.9%를 보임.
- 300만원 이상의 경우, 「찬성」은 60.2%, 「반대」는 32.6%, 「잘 모르겠다」는 7.2%를 보임.
- 무응답의 경우, 「찬성」은 51.2%, 「반대」는 25.7%, 「잘 모르겠다」는 23.2%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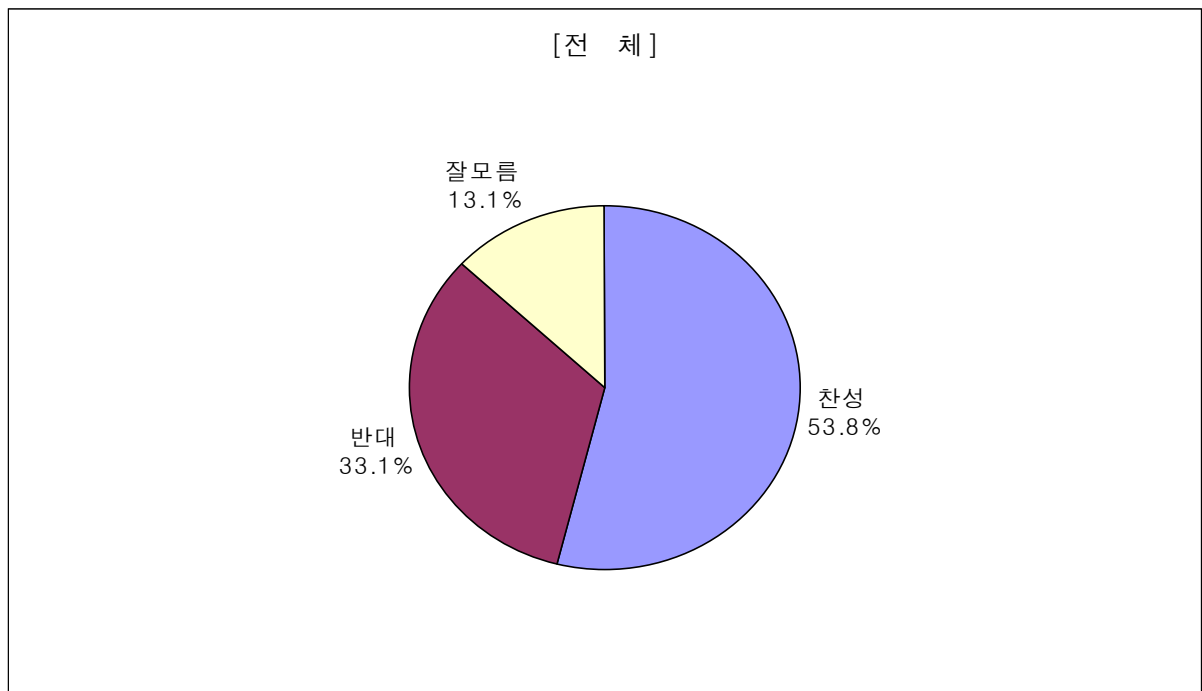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 논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찬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4>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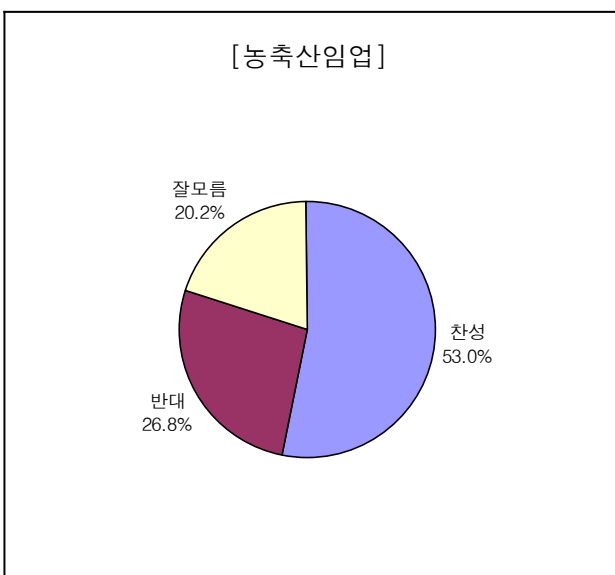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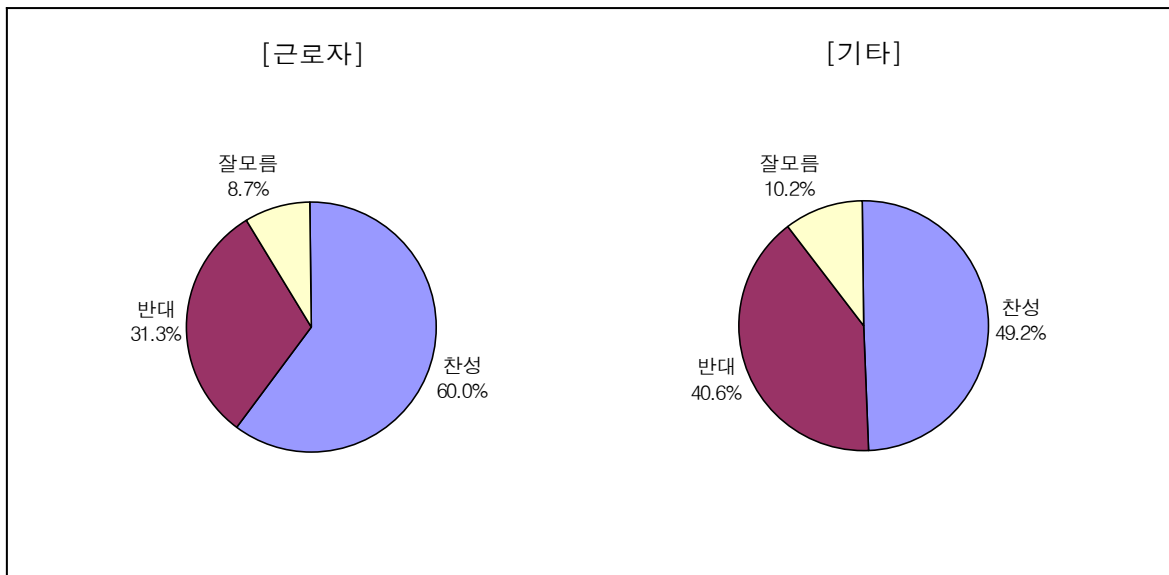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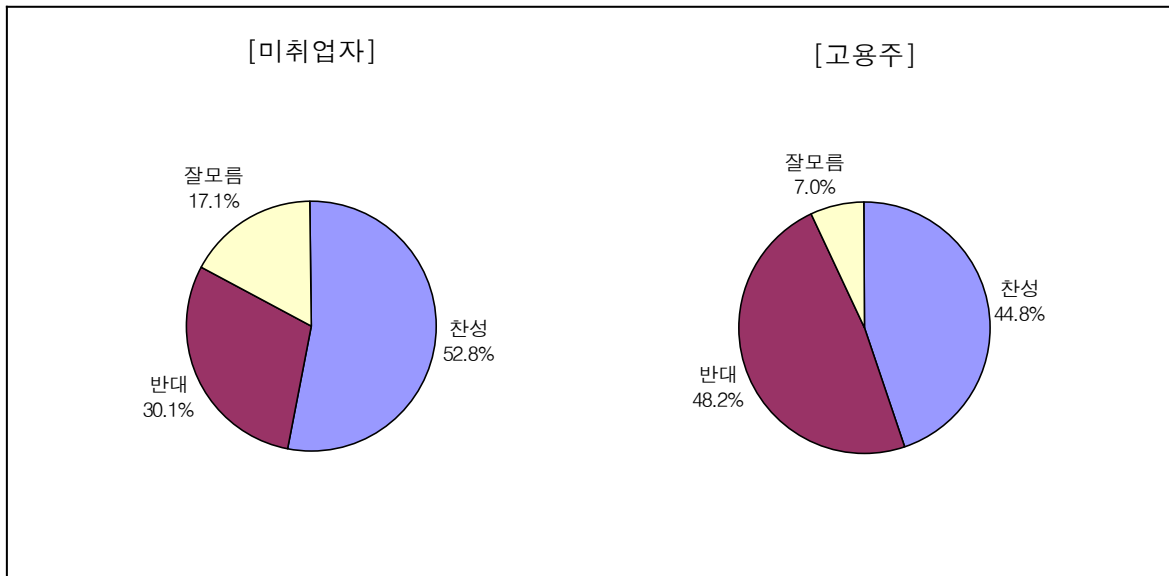
(단위: %)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찬성	반대	잘모름	합 계
전 체	53.8	33.1	13.1	100
성 별				
남 성	55.6	34.3	10.1	100
여 성	52.1	32.0	16.0	100
연령별				
20 ~ 29세	60.3	30.5	9.2	100
30 ~ 39세	59.2	32.0	8.8	100
40 ~ 49세	51.4	33.3	15.2	100
50세이상	45.4	36.1	18.5	100
학력별				
중졸이하	41.3	30.5	28.2	100
고 졸	54.3	33.5	12.2	100
전문대졸	66.6	31.2	2.2	100
대졸이상	59.0	34.5	6.5	100
직업별				
미취업자	52.8	30.1	17.1	100
고용주	44.8	48.2	7.0	100
근로자	60.0	31.3	8.7	100
기 타	49.2	40.6	10.2	100
농축산임업	53.0	26.8	20.2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59.2	27.6	13.2	100
사무직	60.4	32.9	6.7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37.7	32.3	30.0	100
101~150 만원	53.5	30.4	16.1	100
151~200 만원	51.2	34.8	14.0	100
201~300 만원	59.2	34.9	5.9	100
300 만원이상	60.2	32.6	7.2	100
무응답	51.2	25.7		

<그림 3>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직업별>



4.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연월차가 축소되면 연월차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 중 일부가 감소될 가능성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음.
- 전체적으로 「무조건 찬성」이 8.9%,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이 33.5%로 국민의 42.4%는 임금조정이 있더라도 찬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가 34.3%로 임금삭감이 없는 경우는 찬성할 의도가 있으나 임금삭감까지 감수하면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하는 모습이 강조되었으며,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가 23%로 나타나, 다른 실태조사에서 약 7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모습과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은 임금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 47.2%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37.7%의 찬성(임금감소시 반대는 37.8%)으로 반대의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났음.(이는 취업하고 있지 않은 가정주부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남성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1.0%,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6.2%,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0.7%,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1.9%, 「잘 모르겠다」는 0.2%를 보임.
 - 여성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6.8%,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0.9%,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7.8%,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4.1%, 「잘 모르겠다」는 0.4%를 보임.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임금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찬성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남.
 - 20~29세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4.0%,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43.9%,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4.5%,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7.6%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1.7%,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9.9%,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3.7%, 「임금삭감과 상관

없이 무조건 반대」는 14.4%, 「잘 모르겠다」는 0.4%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6.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1.1%,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6.1%,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6.3%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3.8%,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21.0%,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3.2%,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41.3%, 「잘 모르겠다」는 0.8%를 보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무조건 찬성」과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중졸이하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3.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15.0%,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42.9%,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37.4%, 「잘 모르겠다」는 1.1%를 보임.
- 고졸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8.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2.9%,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6.8%,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1.6%, 「잘 모르겠다」는 0.2%를 보임.
- 전문대졸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0.6%,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43.0%,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3.2%,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13.2%를 보임.
- 대졸이상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2.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44.5%,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25.5%,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17.5%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도 근로자들의 경우 11.5%가 「무조건 찬성」, 41.7%가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으로 나타나 총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고용주들의 경우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가 36.3%로 나타나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취업자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8.2%,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0.4%,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9.7%,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1.5%, 「잘 모르겠다」는 0.2%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7.6%,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3.1%,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19.9%,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39.3%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1.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41.7%,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4.7%,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12.1%를 보임.
 - 기타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7.2%,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1.7%,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24.2%,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36.5%, 「잘 모르겠다」는 0.5%를 보임.
 - 농축산업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8.6%,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9.5%,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0.1%,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46.5%, 「잘 모르겠다」는 5.3%를 보임.
- 한편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의 입장차이가 이 부분에 있어 나타나는데, 「무조건 찬성」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11.3%, 사무직의 경우는 11.5%로 비슷한 반면,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생산직근로자 29.5%, 사무직근로자 4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마찬가지로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는 43.7%의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사무직근로자는 30.9%의 비중을 차지해서 위의 차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음.
-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생산직의 경우 15.6%, 사무직의 경우 10.6%를 보임.
-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임금감소가 되더라도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5.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13.0%,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41.4%,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38.5%, 「잘 모르겠다」는 1.7%를 보임.
 - 101~150 만원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9.3%,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0.2%,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9.7%, 「임금삭감과 상

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0.1%, 「잘 모르겠다」는 0.7%를 보임.

- 151~200 만원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5.4%,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3.5%,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9.0%,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2.1%를 보임.
- 201~300 만원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1.5%,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9.4%,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30.2%,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18.8%를 보임.
- 300만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11.7%,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38.6%,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27.9%,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1.8%를 보임.
- 무응답의 경우, 「무조건 찬성」은 3.4%,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52.9%,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는 23.3%,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는 20.4%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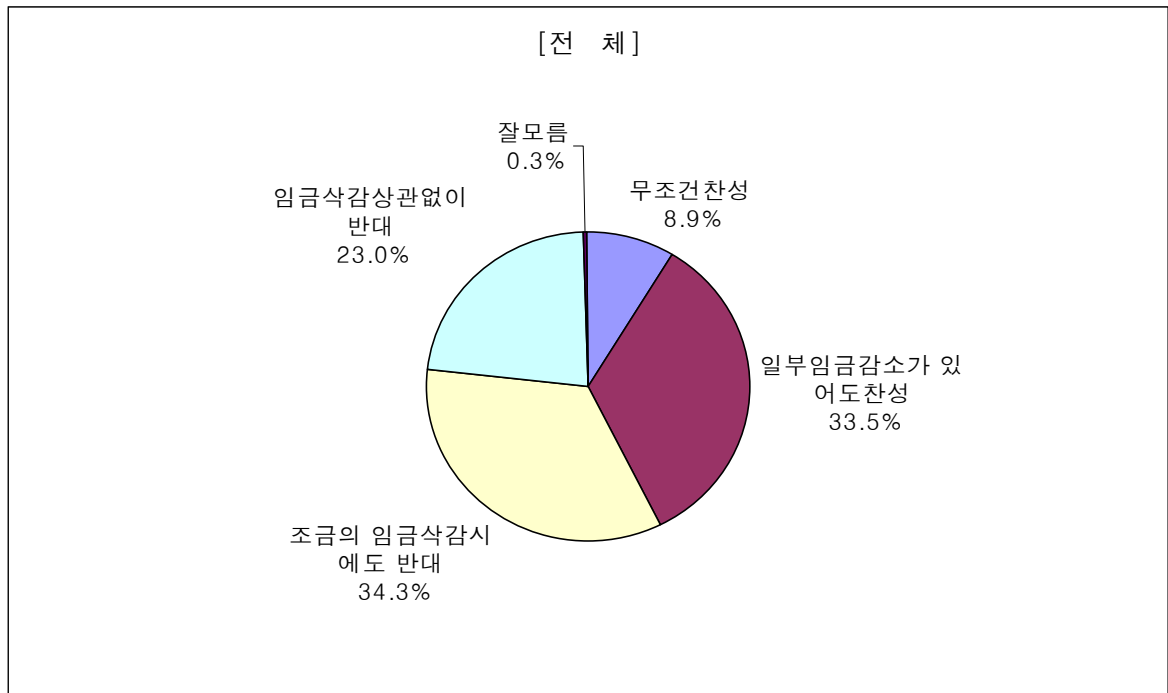
○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제 논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찬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5>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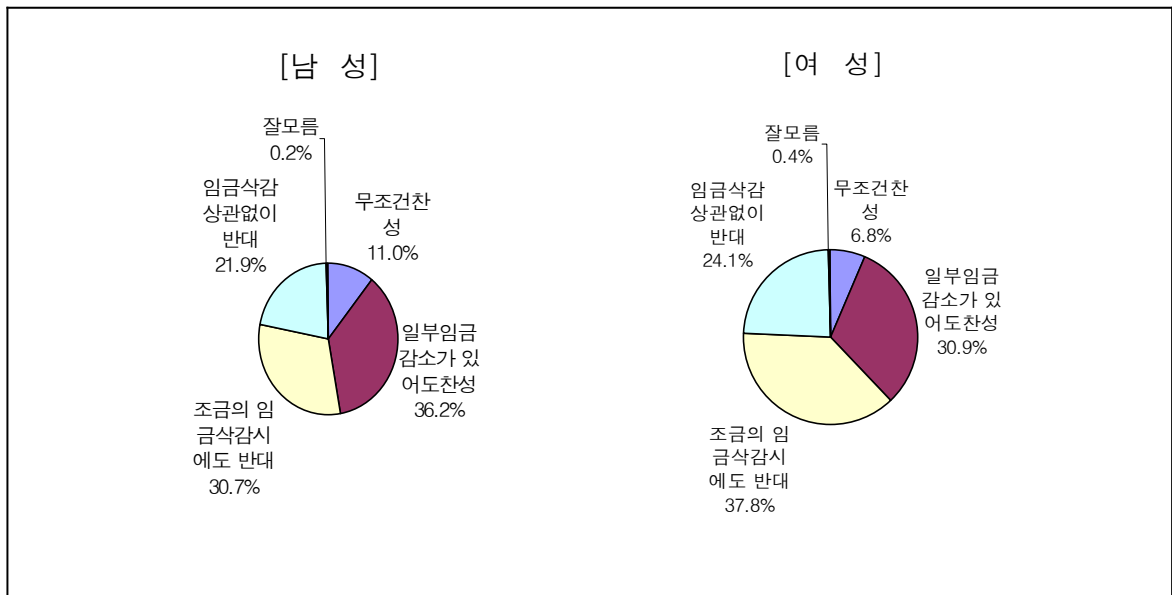
(단위: %)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무조건찬성	일부임금 감소가 있어도 찬성	조금의 임금삭감 시에도 반대	임금삭감 상관없이 반대	잘모름	합 계
전 체	8.9	33.5	34.3	23.0	0.3	100
성 별						
남 성	11.0	36.2	30.7	21.9	0.2	100
여 성	6.8	30.9	37.8	24.1	0.4	100
연령별						
20 ~ 29세	14.0	43.9	34.5	7.6		100
30 ~ 39세	11.7	39.9	33.7	14.4	0.4	100
40 ~ 49세	6.5	31.1	36.1	26.3		100
50세이상	3.8	21.0	33.2	41.3	0.8	100
학력별						
중졸이하	3.5	15.0	42.9	37.4	1.1	100
고 졸	8.5	32.9	36.8	21.6	0.2	100
전문대졸	10.6	43.0	33.2	13.2		100
대졸이상	12.5	44.5	25.5	17.5		100
직업별						
미취업자	8.2	30.4	39.7	21.5	0.2	100
고용주	7.6	33.1	19.9	39.3		100
근로자	11.5	41.7	34.7	12.1		100
기 타	7.2	31.7	24.2	36.5	0.5	100
농축산임업	8.6	9.5	30.1	46.5	5.3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11.3	29.5	43.7	15.6		100
사무직	11.5	46.9	30.9	10.6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5.5	13.0	41.4	38.5	1.7	100
101~150 만원	9.3	30.2	39.7	20.1	0.7	100
151~200 만원	5.4	33.5	39.0	22.1		100
201~300 만원	11.5	39.4	30.2	18.8		100
300 만원이상	11.7	38.6	27.9	21.8		100
무응답	3.4	52.9	23.3	20.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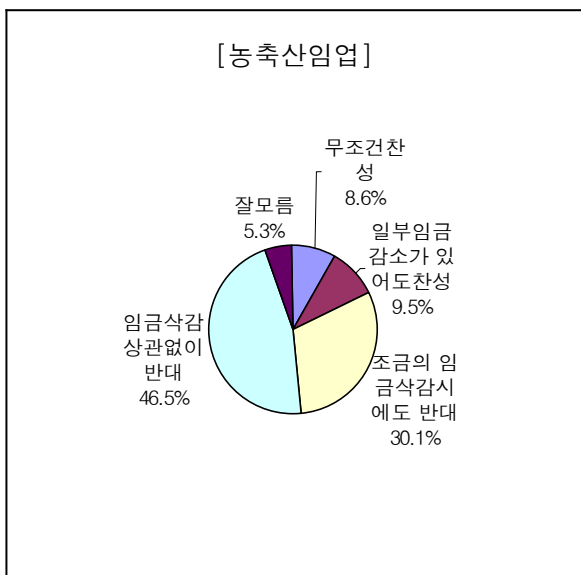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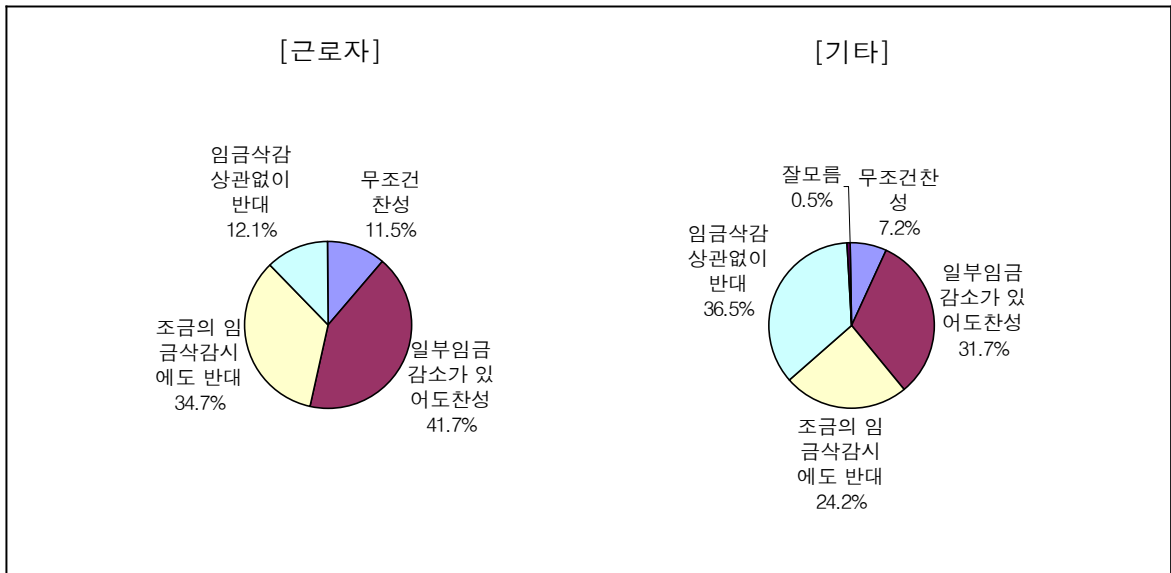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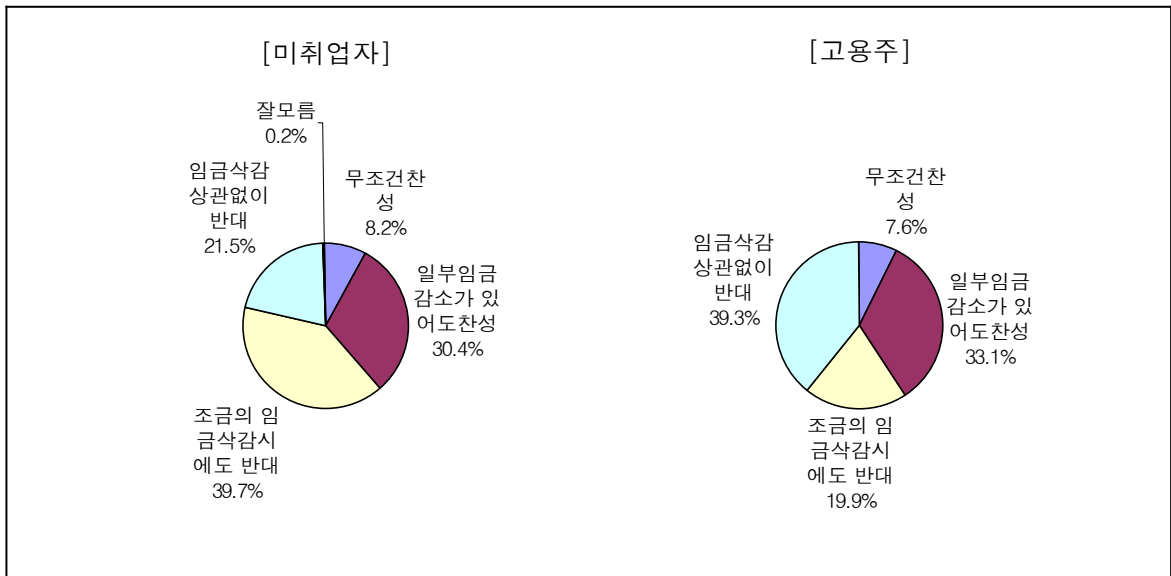
<그림 4> 임금감소시 주5일 근무제 도입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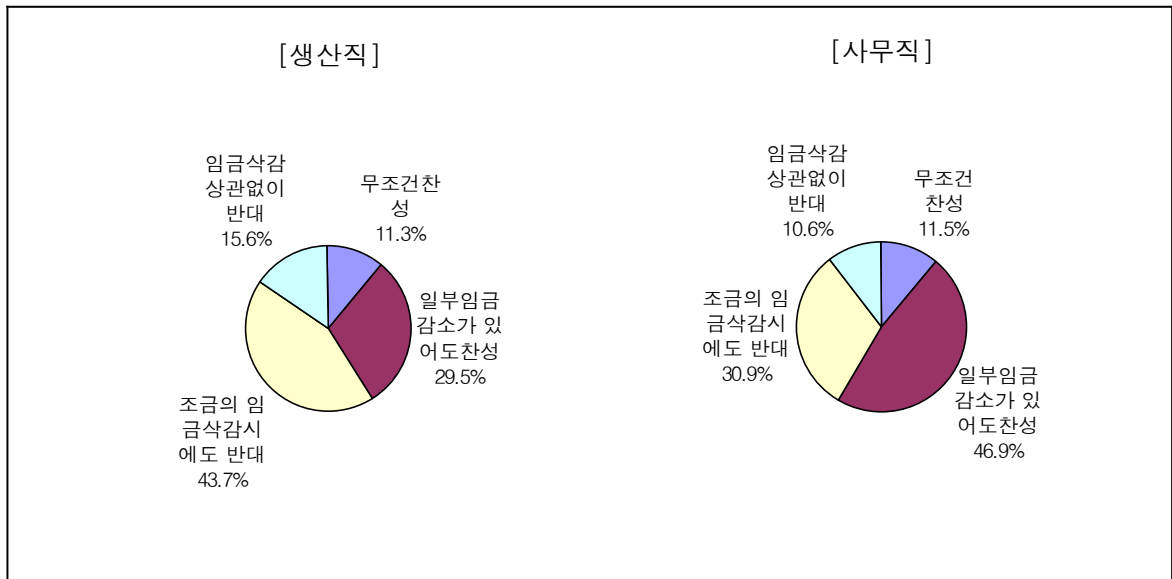
<성 별>



<직업별>



<근로형태별>



5.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대기업과 금융산업과 같이 근로조건이 유리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33.6%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음.

-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가 2.5%, 「전반적 실시」가 0.9%,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2%,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3%로 다양한 소수의견도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단계별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62.8%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56.5%로 나타났음.

- 남성의 경우, 「찬성」은 62.8%, 「반대」 31.4%,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1.7%, 「전반적 실시」가 1.1%,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6%, 「잘 모르겠다」는 1.4%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찬성」은 56.5%, 「반대」 35.7%,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3.4%, 「전반적 실시」가 0.8%,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4%,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0%, 「잘 모르겠다」는 2.2%를 보임.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찬성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남.

- 20~29세의 경우, 「찬성」은 73.2%, 「반대」 25.0%, 「전반적 실시」가 1.4%, 「잘 모르겠다」는 0.4%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찬성」은 63.0%, 「반대」 31.0%,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0.7%, 「전반적 실시」가 1.6%,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4%,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0.6%, 「잘 모르겠다」는 2.7%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찬성」은 57.7%, 「반대」 35.7%,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3.2%, 「전반적 실시」가 1.0%,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0.8%, 「잘 모르겠다」는 1.6%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찬성」은 46.6%, 「반대」 41.5%,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5.9%,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4%, 「아직 시기

적으로 빠름」이 3.3%, 「잘 모르겠다」는 2.4%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 근로자들의 경우 66.5%가 단계별 도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인 반면, 고용주는 55%가 반대의견을 보여 명백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

- 미취업자의 경우, 「찬성」은 61.8%, 「반대」 32.0%,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2.5%, 「전반적 실시」가 0.2%,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2%,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3%, 「잘 모르겠다」는 2.0%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찬성」은 45.0%, 「반대」 55.0%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찬성」은 66.5%, 「반대」 29.5%,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0.3%, 「전반적 실시」가 2.7%,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0.3%, 「잘 모르겠다」는 0.7%를 보임.
- 기타의 경우, 「찬성」은 48.9%, 「반대」 38.8%,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5.8%, 「전반적 실시」가 0.4%,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5%,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2.8%, 「잘 모르겠다」는 2.9%를 보임.
- 농축산임업의 경우, 「찬성」은 45.0%, 「반대」 45.5%,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4.2%, 「잘 모르겠다」는 5.3%를 보임.

○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69.4%가 찬성하며 사무직의 경우는 65.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계별 도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간에는 큰 입장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생산직의 경우, 「찬성」은 69.4%, 「반대」 27.5%,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0.9%,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0%, 「잘 모르겠다」는 1.2%를 보임.
- 사무직의 경우, 「찬성」은 65.3%, 「반대」 30.3%, 「전반적 실시」가 3.8%, 「잘 모르겠다」는 0.5%를 보임.

○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단계별 도입에 대해 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찬성」은 47.5%, 「반대」 43.3%,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4.6%,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0.8%, 「잘 모르겠다」는 3.7%를 보임.

- 101~150 만원의 경우, 「찬성」은 59.4%, 「반대」 33.0%,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2.6%, 「전반적 실시」가 1.4%,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0.7%, 「잘 모르겠다」는 2.8%를 보임.
- 151~200 만원의 경우, 「찬성」은 59.2%, 「반대」 34.6%,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2.3%, 「전반적 실시」가 1.0%,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1%, 「잘 모르겠다」는 1.7%를 보임.
- 201~300 만원의 경우, 「찬성」은 63.4%, 「반대」 31.9%,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1.5%, 「전반적 실시」가 0.7%,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3%, 「잘 모르겠다」는 1.1%를 보임.
- 300만원 이상의 경우, 「찬성」은 62.4%, 「반대」 30.3%,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2.6%, 「전반적 실시」가 1.0%, 「격주 휴무제부터 도입」이 0.8%,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1.7%, 「잘 모르겠다」는 1.2%를 보임.
- 무응답의 경우, 「찬성」은 63.2%, 「반대」 25.6%, 기타의견으로 「주5일 근무제를 무조건 반대」는 3.2%, 「전반적 실시」가 4.0%, 「아직 시기적으로 빠름」이 4.0%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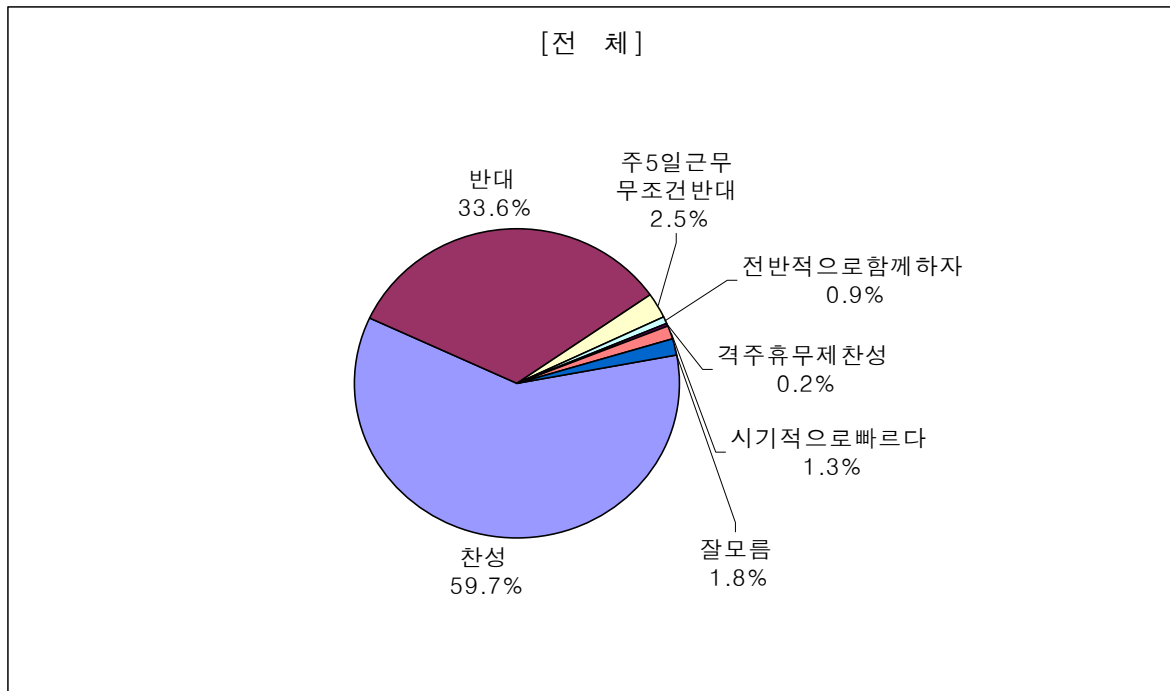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 인지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음.

<표 6>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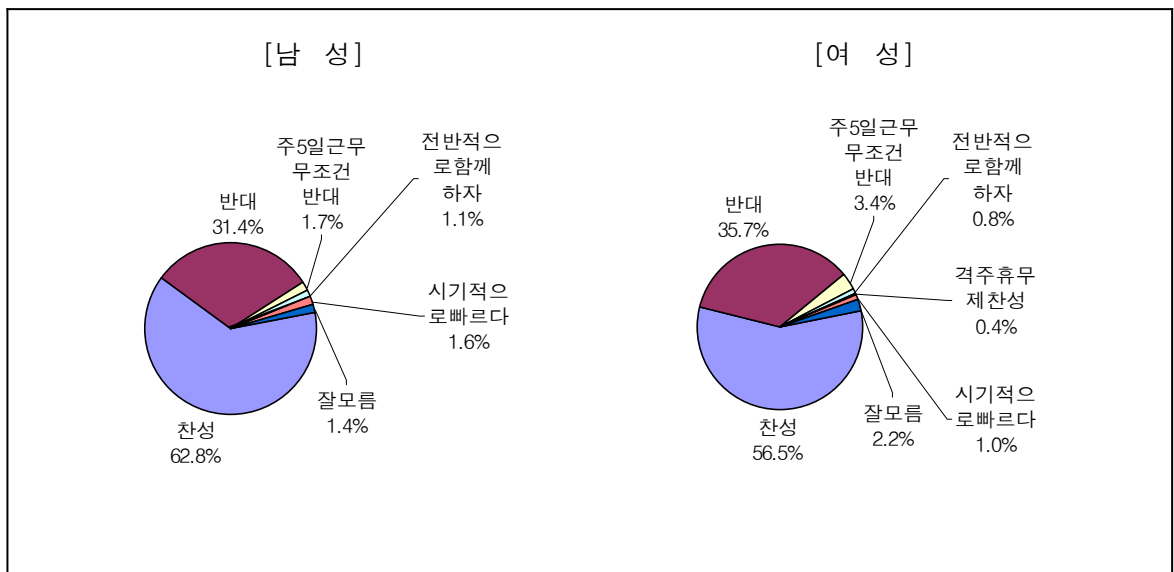
(단위: %)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찬성	반대	주5일근 무무조건 반대	전반적 으로 함께 하자	격주휴무 제 찬성	시기적 으로 빠르다	잘모름	합 계
전 체	59.6	33.6	2.5	0.9	0.2	1.3	1.8	100
성 별								
남 성	62.8	31.4	1.7	1.1		1.6	1.4	100
여 성	56.5	35.7	3.4	0.8	0.4	1.0	2.2	100
연령별								
20 ~ 29세	73.2	25.0		1.4			0.4	100
30 ~ 39세	63.0	31.0	0.7	1.6	0.4	0.6	2.7	100
40 ~ 49세	57.7	35.7	3.2	1.0		0.8	1.6	100
50세이상	46.6	41.5	5.9		0.4	3.3	2.4	100
학력별								
중졸이하	51.1	37.3	5.1			2.5	4.0	100
고 졸	60.3	33.1	2.7	1.2	0.2	1.5	1.0	100
전문대졸	69.8	30.2						100
대졸이상	62.4	32.5	1.2	1.4	0.3	0.4	1.9	100
직업별								
미취업자	61.8	32.0	2.5	0.2	0.2	1.3	2.0	100
고용주	45.0	55.0						100
근로자	66.5	29.5	0.3	2.7		0.3	0.7	100
기 타	48.9	38.8	5.8	0.4	0.5	2.8	2.9	100
농축산임업	45.0	45.5	4.2				5.3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69.4	27.5	0.9			1.0	1.2	100
사무직	65.3	30.3		3.8			0.5	100
월가구소득별								
100 만원미만	47.5	43.3	4.6			0.8	3.7	100
101~150 만원	59.4	33.0	2.6	1.4		0.7	2.8	100
151~200 만원	59.2	34.6	2.3	1.0		1.1	1.7	100
201~300 만원	63.4	31.9	1.5	0.7		1.3	1.1	100
300 만원이상	62.4	30.3	2.6	1.0	0.8	1.7	1.2	100
무응답	63.2	25.6	3.2	4.0		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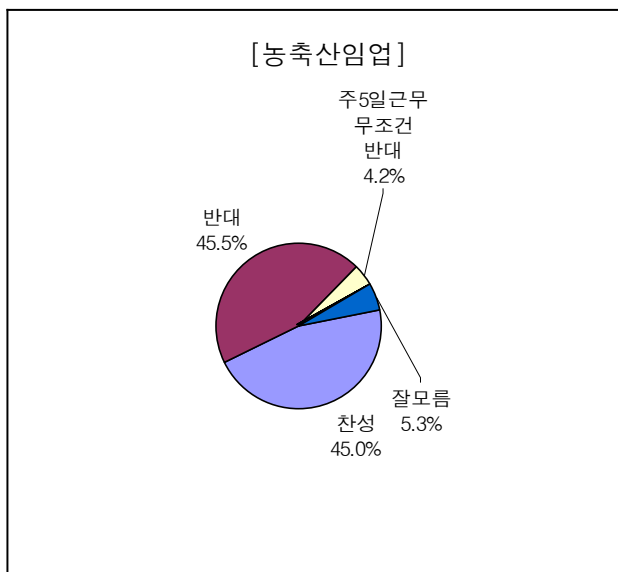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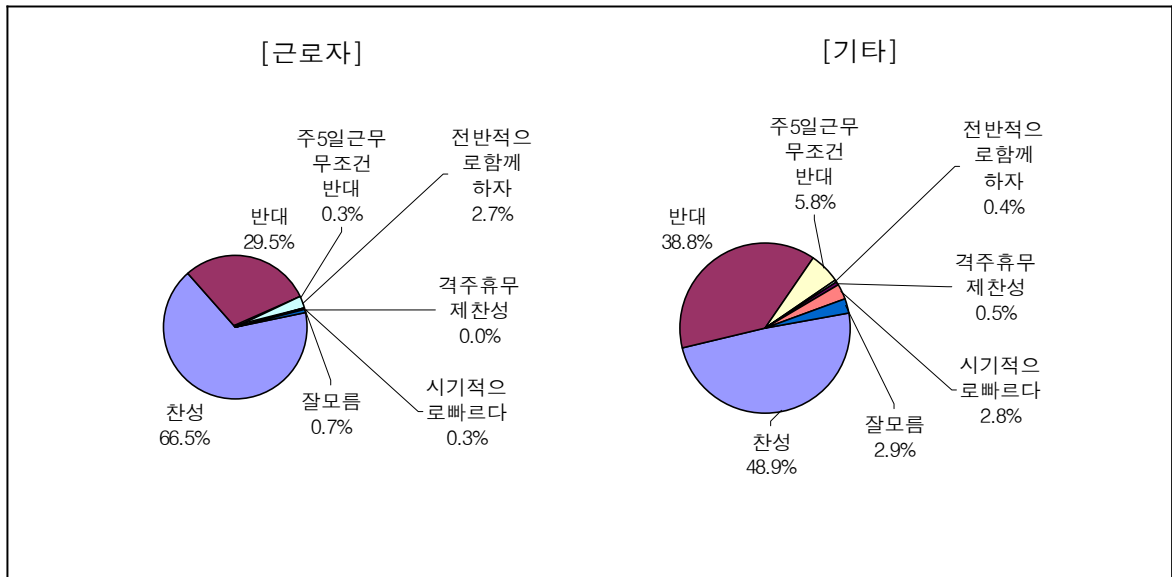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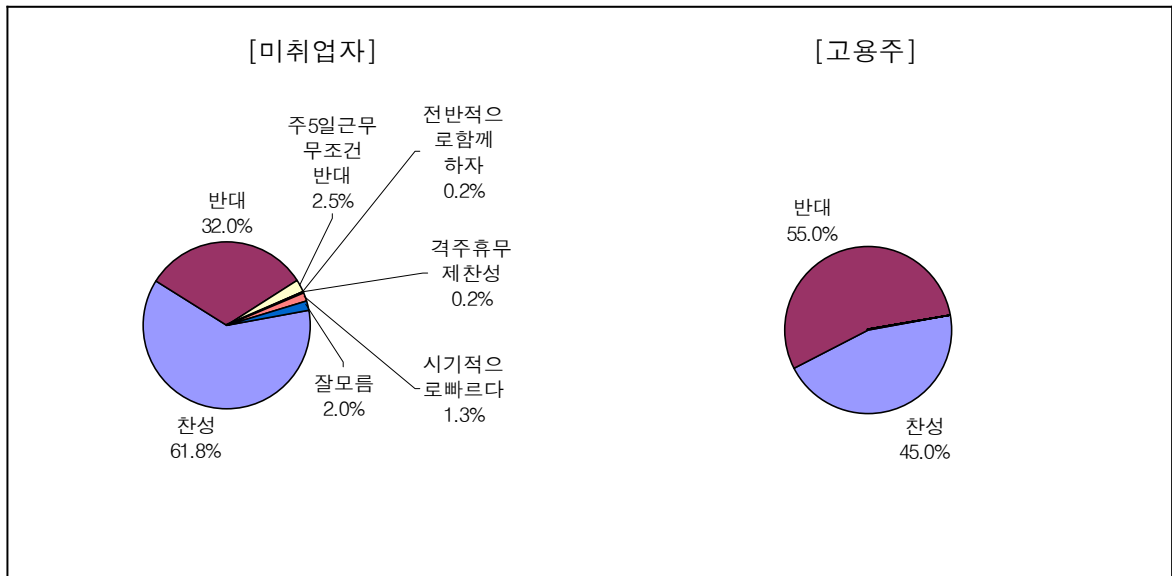
<그림 5>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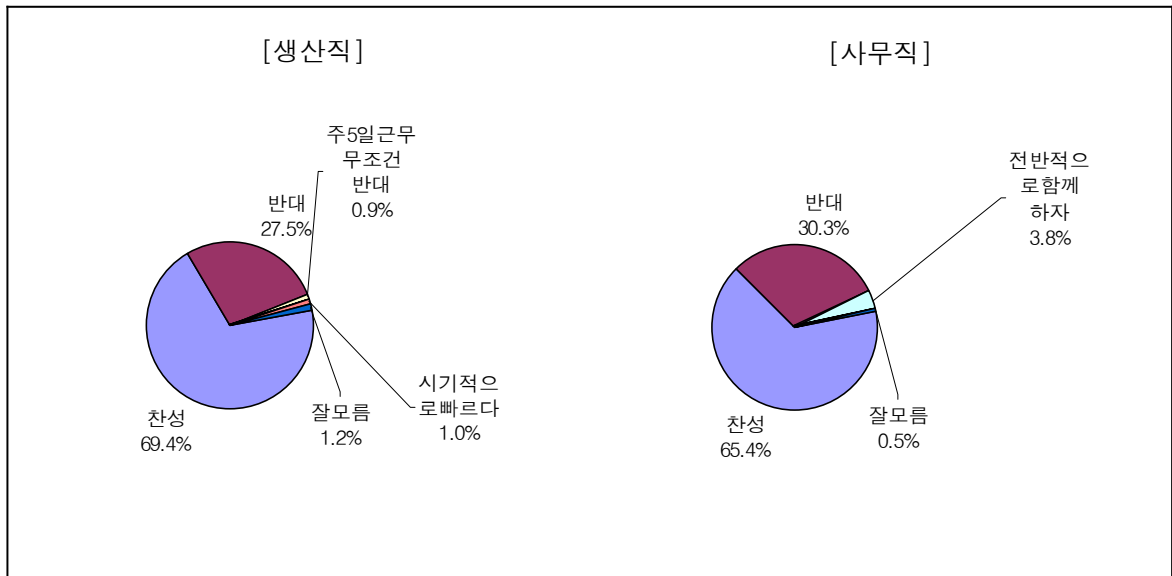
<성 별>



<직업별>



<근로형태별>



6.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 예상했던대로 「삶의 질 향상」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25.9%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11.7%,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이 7.7% 등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하는 국민이 약 77%로 나타남.
- 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견이 21.9%로 나타났음.(이는 고용주 층과 고연령층에서 나온 의견이 다수이었음.)
 - 기타의견으로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3%,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1%, 「잘 모르겠다」는 0.8%를 보임.
- 성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2.4%, 「노동생산성 향상」은 11.6%,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8.2%,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5.6%,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0.9%,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4%,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2%, 「잘 모르겠다」는 0.7%를 보임.
 - 여성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0.7%, 「노동생산성 향상」은 11.8%,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7.3%,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6.1%,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2.9%,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2%, 「잘 모르겠다」는 1.0%를 보임.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이 높는데 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대의 경우로 나타났음.
 - 20~29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6.8%, 「노동생산성 향상」은 18.7%,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9.2%,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7.0%,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7.3%,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4%, 「잘 모르겠다」는 0.6%를 보임.

- 30~39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8.5%, 「노동생산성 향상」은 10.6%,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6.4%,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30.7%,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3.8%를 보임.
- 40~49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6.2%, 「노동생산성 향상」은 13.9%,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5.9%,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8.0%,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4.1%,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1.4%, 「잘 모르겠다」는 0.5%를 보임.
- 50세 이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5.0%, 「노동생산성 향상」은 5.2%,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9.2%,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18.9%,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39.6%, 「잘 모르겠다」는 2.1%를 보임.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이 증가했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에 약 40%의 응답을 했음.

- 중졸이하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8.0%, 「노동생산성 향상」은 6.4%,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8.5%,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14.5%,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39.5%, 「잘 모르겠다」는 3.0%를 보임.
- 고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7.8%, 「노동생산성 향상」은 13.1%,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6.9%,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30.7%,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1.1%,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2%, 「잘 모르겠다」는 0.2%를 보임.
- 전문대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0.9%, 「노동생산성 향상」은 11.2%,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6.5%,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30.7%,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5.3%,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2.2%, 「잘 모르겠다」는 3.3%를 보임.
- 대졸이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9.2%, 「노동생산성 향상」은 13.1%,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8.6%,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5.3%,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3.1%,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7%를 보임.

○ 직업별 분석에서도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전체의 약

86.9%), 고용주들은 「좋은 기대효과가 없음」에 53.7%의 비중을 보여 여전히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취업자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2.9%, 「노동생산성 향상」은 10.6%,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8.9%,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5.8%,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0.2%,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2%,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2%, 「잘 모르겠다」는 1.1%를 보임.
- 고용주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15.2%, 「노동생산성 향상」은 3.2%,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10.6%,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13.3%,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53.7%,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4.0%를 보임.
- 근로자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6.5%, 「노동생산성 향상」은 16.0%,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9.2%,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5.4%,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2.7%,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4%를 보임.
- 기타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4.3%, 「노동생산성 향상」은 10.6%,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2.7%,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7.8%,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33.5%, 「잘 모르겠다」는 1.2%를 보임.
- 농축산임업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0.8%,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12.8%,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8.7%,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2.4%, 「잘 모르겠다」는 5.3%를 보임.

○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사이에도 입장차이가 나타나는데, 사무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이 무려 42.4%의 비중을 기록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9.1%가 나온 반면, 생산직근로자는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33.1%, 「삶의 질 향상」이 22.5%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22.4%가 나온 것으로 보아 생산직근로자보다는 사무직근로자가 주5일근무제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직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은 14.8%,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7.2%,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2.4%를 보임.
- 사무직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은 16.4%,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10.0%,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2.1%,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8.6%,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5%를 보임.

○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5.0%, 「노동생산성 향상」은 6.4%,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8.3%,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16.8%,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39.6%,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8%, 「잘 모르겠다」는 3.1%를 보임.
- 101~150 만원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3.6%, 「노동생산성 향상」은 12.4%,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5.2%,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4.9%,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3.2%, 「잘 모르겠다」는 0.7%를 보임.
- 151~200 만원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28.3%, 「노동생산성 향상」은 12.3%,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7.4%,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31.8%,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9.3%,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4%, 「잘 모르겠다」는 0.4%를 보임.
- 201~300 만원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0.4%, 「노동생산성 향상」은 12.5%,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10.6%,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8.6%,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16.8%, 「자기계발효과가 있다」는 0.4%, 「잘 모르겠다」는 0.6%를 보임.
- 300만원 이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7.3%, 「노동생산성 향상」은 13.4%,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5.7%,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22.3%,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20.5%, 「소비품조만 늘어난다」는 0.4%, 「잘 모르겠다」는 0.4%를 보임.
- 무응답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은 39.6%, 「노동생산성 향상」은 6.1%,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은 14.8%,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은 32.6%,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가 6.9%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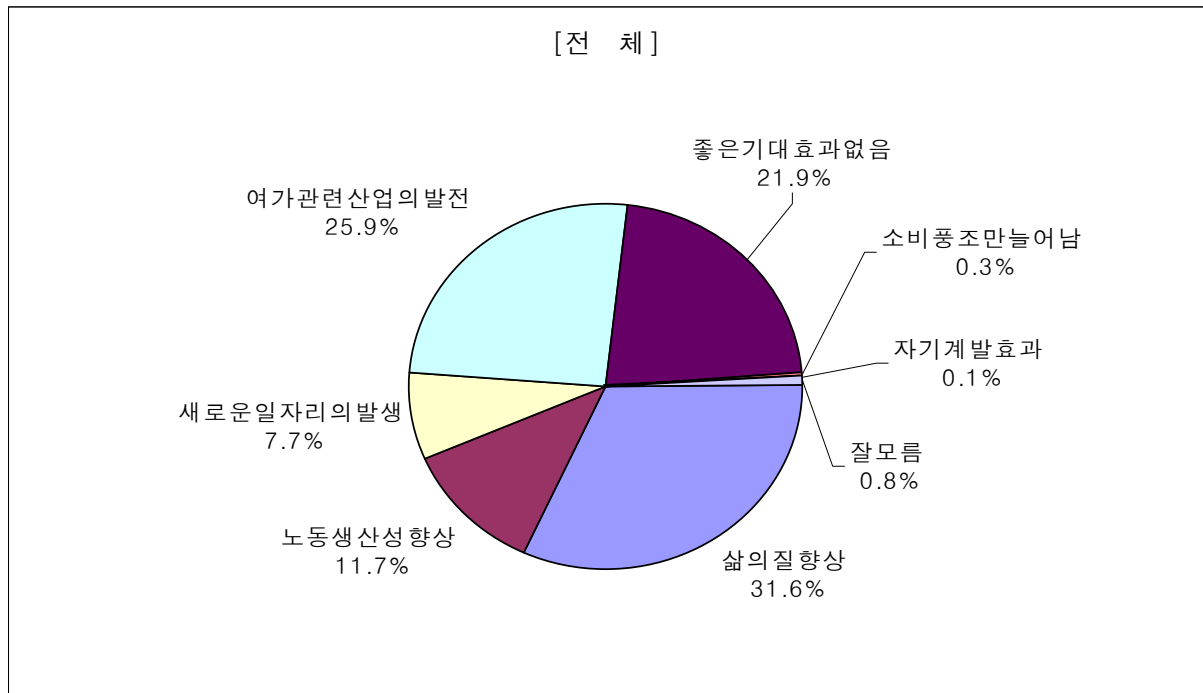
○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제 논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감소하고 있음.

<표 7>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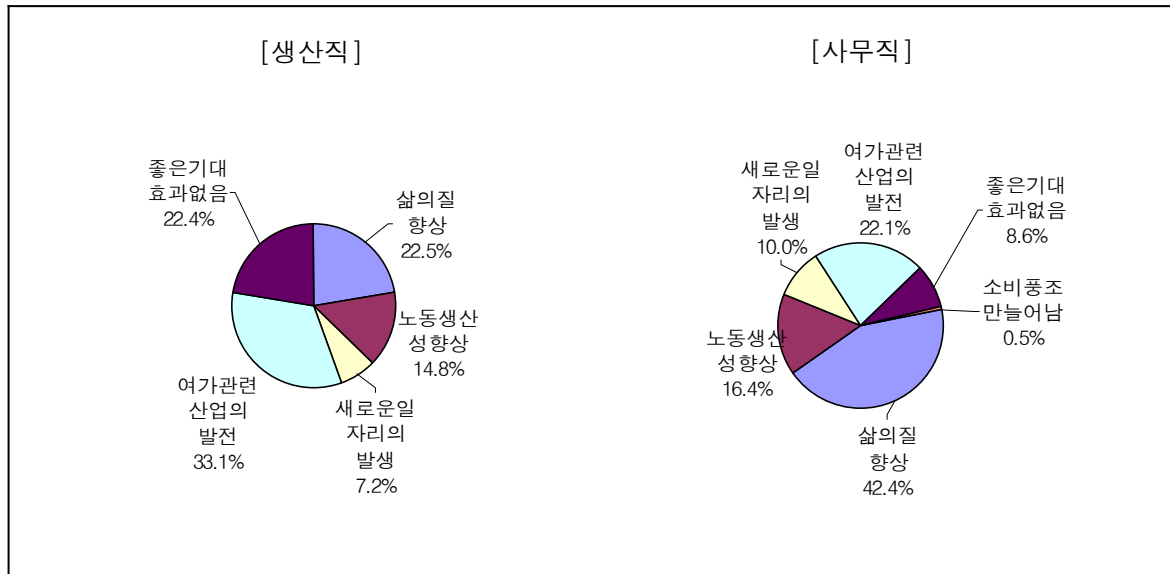
(단위: %)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삶의질 향상	노동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의발생	여가관 련산업 의발전	좋은기 대효과 없음	소비품 조만늘 어남	자기계 발효과	잘모름	합 계
전 체	31.6	11.7	7.7	25.9	21.9	0.3	0.1	0.8	100
성 별									
남 성	32.4	11.6	8.2	25.6	20.9	0.4	0.2	0.7	100
여 성	30.7	11.8	7.3	26.1	22.9	0.2		1.0	100
연령별									
20 ~ 29세	36.8	18.7	9.2	27.0	7.3		0.4	0.6	100
30 ~ 39세	38.5	10.6	6.4	30.7	13.8				100
40 ~ 49세	26.2	13.9	5.9	28.0	24.1	1.4		0.5	100
50세이상	25.0	5.2	9.2	18.9	39.6			2.1	100
학력별									
중졸이하	28.0	6.4	8.5	14.5	39.5			3.0	100
고 졸	27.8	13.1	6.9	30.7	21.1		0.2	0.2	100
전문대졸	30.9	11.2	6.5	30.7	15.3	2.2		3.3	100
대졸이상	39.2	13.1	8.6	25.3	13.1	0.7			100
직업별									
미취업자	32.9	10.6	8.9	25.8	20.2	0.2	0.2	1.1	100
고용주	15.2	3.2	10.6	13.3	53.7	4.0			100
근로자	36.5	16.0	9.2	25.4	12.7	0.4			100
기 타	24.3	10.6	2.7	27.8	33.5			1.2	100
농축산임업	30.8		12.8	28.7	22.4			5.3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22.5	14.8	7.2	33.1	22.4				100
사무직	42.4	16.4	10.0	22.1	8.6	0.5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25.0	6.4	8.3	16.8	39.6	0.8		3.1	100
101~150 만원	33.6	12.4	5.2	24.9	23.2			0.7	100
151~200 만원	28.3	12.3	7.4	31.8	19.3	0.4		0.4	100
201~300 만원	30.4	12.5	10.6	28.6	16.8		0.4	0.6	100
300 만원이상	37.3	13.4	5.7	22.3	20.5	0.4		0.4	100
무응답	39.6	6.1	14.8	32.6	6.9				100

<그림 6>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근로형태별>



7.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확산전망

- 이 같은 상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 일부 경영계에서 바라는 것과 같이 주5일 근무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도입이 멈춰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보았음.
- 전체적으로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이 12.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이 70.1%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대세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확산되지 않을 것」은 11.3%, 「잘 모르겠음」은 6.0%로 나타남.
- 이렇듯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노동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 될수록 현실과 법 사이의 갈등이 커지게 될 것임.
- 성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3.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2.1%, 「확산되지 않을 것」은 11.4%, 「잘 모르겠음」은 2.8%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1.5%,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68.1%, 「확산되지 않을 것」은 11.3%, 「잘 모르겠음」은 9.1%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한 예상이 강하게 나타남.
 - 20~29세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4.8%,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7.8%, 「확산되지 않을 것」은 7.0%, 「잘 모르겠음」은 0.4%로 나타남.
 - 30~39세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7.2%, 「서서히 확산되

어 나갈 것」은 71.7%, 「확산되지 않을 것」은 10.7%, 「잘 모르겠음」은 0.4%로 나타남.

- 40~49세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9.5%,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4.2%, 「확산되지 않을 것」은 9.9%, 「잘 모르겠음」은 6.4%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8.8%,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59.1%, 「확산되지 않을 것」은 16.6%, 「잘 모르겠음」은 15.5%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한 예상이 강하게 나타남.

- 중졸이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8.0%,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48.3%, 「확산되지 않을 것」은 17.8%, 「잘 모르겠음」은 25.9%로 나타남.
- 고졸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1.9%,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6.1%, 「확산되지 않을 것」은 10.7%, 「잘 모르겠음」은 1.4%로 나타남.
- 전문대졸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2.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5.2%, 「확산되지 않을 것」은 10.0%, 「잘 모르겠음」은 2.2%로 나타남.
- 대졸이상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6.4%,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4.3%, 「확산되지 않을 것」은 8.4%, 「잘 모르겠음」은 0.9%로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도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반면(「확산되지 않을 것」의 비중이 7.7%), 고용주들은 확산이 저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확산되지 않을 것」의 비중이 31.9%).

- 미취업자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0.8%,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68.9%, 「확산되지 않을 것」은 11.7%, 「잘 모르겠음」은 8.6%로 나타남.
- 고용주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3.2%,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64.8%, 「확산되지 않을 것」은 31.9%로 나타남.

- 근로자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7.5%,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2.6%, 「확산되지 않을 것」은 7.7%, 「잘 모르겠음」은 2.2%로 나타남.
- 기타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1.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1.1%, 「확산되지 않을 것」은 12.0%, 「잘 모르겠음」은 5.3%로 나타남.
- 농축산업업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6.8%,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59.7%, 「확산되지 않을 것」은 18.7%, 「잘 모르겠음」은 14.9%로 나타남.

○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사이에는 큰 차이는 없으나 사무직근로자들이 보다 강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직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1.7%,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1.5%, 「확산되지 않을 것」은 10.6%, 「잘 모르겠음」은 6.2%로 나타남.
- 사무직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9.9%,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3.0%, 「확산되지 않을 것」은 6.5%, 「잘 모르겠음」은 0.5%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분석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100만원 미만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0.3%,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46.7%, 「확산되지 않을 것」은 15.1%, 「잘 모르겠음」은 28.0%로 나타남.
- 101~150 만원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3.5%,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67.2%, 「확산되지 않을 것」은 12.0%, 「잘 모르겠음」은 7.3%로 나타남.
- 151~200 만원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1.4%,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3.8%, 「확산되지 않을 것」은 11.0%, 「잘 모르겠음」은 3.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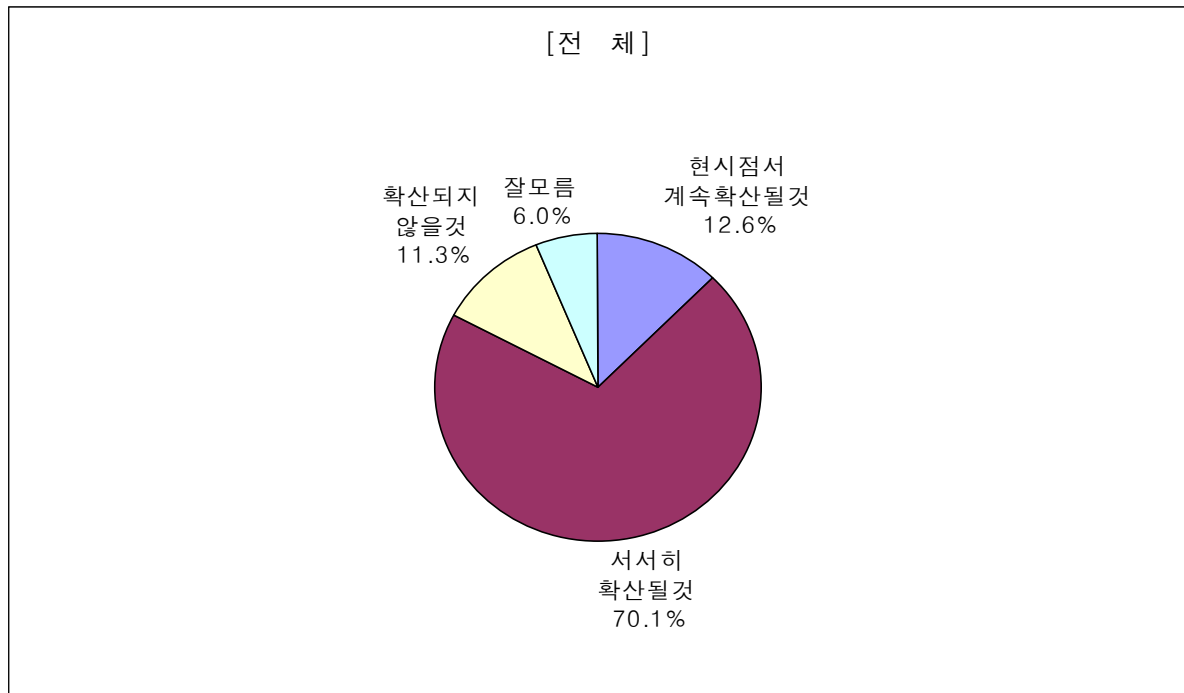
- 201~300 만원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5.8%,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5.2%, 「확산되지 않을 것」은 8.6%, 「잘 모르겠음」은 0.4%로 나타남.
- 300만원 이상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12.1%,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5.4%, 「확산되지 않을 것」은 10.9%, 「잘 모르겠음」은 1.6%로 나타남.
- 무응답의 경우,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은 4.0%,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은 74.2%, 「확산되지 않을 것」은 21.8%로 나타남.

<표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주5일 근무제 확산전망

(단위: %)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주5일 근무제 확산전망					
	현시점서 계속확산 될것	서서히 확산될것	확산되지 않을것	잘모름	합 계
전 체	12.6	70.1	11.3	6.0	100
성 별					
남 성	13.6	72.1	11.4	2.8	100
여 성	11.5	68.1	11.3	9.1	100
연령별					
20 ~ 29세	14.8	77.8	7.0	0.4	100
30 ~ 39세	17.2	71.7	10.7	0.4	100
40 ~ 49세	9.5	74.2	9.9	6.4	100
50세이상	8.8	59.1	16.6	15.5	100
학력별					
중졸이하	8.0	48.3	17.8	25.9	100
고 졸	11.9	76.1	10.7	1.4	100
전문대졸	12.6	75.2	10.0	2.2	100
대졸이상	16.4	74.3	8.4	0.9	100
직업별					
미취업자	10.8	68.9	11.7	8.6	100
고용주	3.2	64.8	31.9		
근로자	17.5	72.6	7.7	2.2	100
기 타	11.6	71.1	12.0	5.3	100
농축산임업	6.8	59.7	18.7	14.9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11.7	71.5	10.6	6.2	100
사무직	19.9	73.0	6.5	0.5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10.3	46.7	15.1	28.0	100
101~150 만원	13.5	67.2	12.0	7.3	100
151~200 만원	11.4	73.8	11.0	3.9	100
201~300 만원	15.8	75.2	8.6	0.4	100
300 만원이상	12.1	75.4	10.9	1.6	100
무응답	4.0	74.2			

<그림 7>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주5일 근무제 확산전망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상황에서 만약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 이 문제를 두고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양상이 확대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따라서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향후 주5일 근무제가 노사교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음.
-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대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 55.5%로 전체의 약 75%가 문제발생을 예상한 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 18.6%로 나타남.
- 성별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남성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1.0%,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3.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1.2%, 「잘 모르겠음」은 4.7%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7.4%,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7.8%,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6.1%, 「잘 모르겠음」은 8.7%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졌음.
 - 20~29세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60.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8.1%, 「잘 모르겠음」은 2.6%로 나타남.
 - 30~39세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7.7%,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61.5%,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7.9%, 「잘 모르겠음」은 2.9%로 나타남.
 - 40~49세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2.8%,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5.5%,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6.9%, 「잘 모르겠음」은 4.8%로 나타남.
 - 50세 이상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7.8%,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46.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1.1%, 「잘 모르겠음」은 15.1%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특이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음.

- 중졸이하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7.0%,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42.0%,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1.0%, 「잘 모르겠음」은 19.9%로 나타남.
- 고졸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0.3%,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60.0%,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5.5%, 「잘 모르겠음」은 4.2%로 나타남.
- 전문대졸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6.6%,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3.2%,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5.9%, 「잘 모르겠음」은 4.4%로 나타남.
- 대졸이상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9.4%,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7.8%,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0.5%, 「잘 모르겠음」은 2.4%로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도 의외로 근로자나 고용주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고용주 70.9%, 근로자 75.8%).

- 미취업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6.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7.4%,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7.5%, 「잘 모르겠음」은 8.9%로 나타남.
- 고용주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1.6%,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49.3%,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5.9%, 「잘 모르겠음」은 3.2%로 나타남.
- 근로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2.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3.6%,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0.6%, 「잘 모르겠음」은 3.7%로 나타남.
- 기타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9.8%,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7.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7.7%, 「잘 모르겠음」은 5.4%로 나타남.
- 농축산임업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36.7%,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26.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7.6%, 「잘 모르겠음」은 19.6%로 나타남.

○ 생산직근로자가 사무직근로자보다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생산직 78.6%, 사무직 74.6%)

- 생산직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4.7%,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3.9%,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6.3%, 「잘 모르겠음」은 5.1%로 나타남.
- 사무직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1.1%,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3.5%,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2.3%, 「잘 모르겠음」은 3.1%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분석은 특이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 100만원 미만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8.1%,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36.1%,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0.8%, 「잘 모르겠음」은 24.9%로 나타남.
- 101~150 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6.8%,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4.9%,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8.1%, 「잘 모르겠음」은 10.2%로 나타남.
- 151~200 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1.4%,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9.8%,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4.7%, 「잘 모르겠음」은 4.0%로 나타남.
- 201~300 만원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17.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60.4%,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0.8%, 「잘 모르겠음」은 1.6%로 나타남.
- 300만원 이상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0.6%,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57.8%,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19.1%, 「잘 모르겠음」은 2.4%로 나타남.
- 무응답의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은 22.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은 49.6%,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은 21.0%, 「잘 모르겠음」은 7.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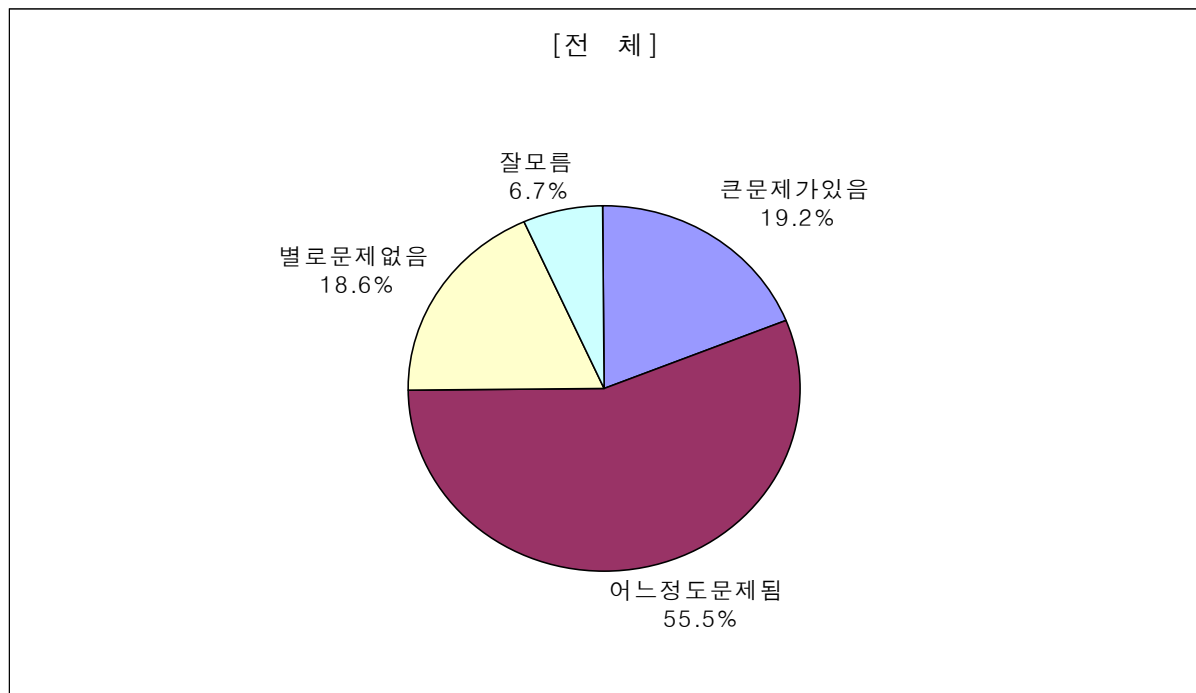
○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제 논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수록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9>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큰문제가 있음	어느정도 문제됨	별로문제 없음	잘모름	합 계
전 체	19.2	55.5	18.6	6.7	100
성 별					
남 성	21.0	53.1	21.2	4.7	100
여 성	17.4	57.8	16.1	8.7	100
연령별					
20 ~ 29세	19.2	60.1	18.1	2.6	100
30 ~ 39세	17.7	61.5	17.9	2.9	100
40 ~ 49세	22.8	55.5	16.9	4.8	100
50세이상	17.8	46.1	21.1	15.1	100
학력별					
중졸이하	17.0	42.0	21.0	19.9	100
고 졸	20.3	60.0	15.5	4.2	100
전문대졸	16.6	53.2	25.9	4.4	100
대졸이상	19.4	57.8	20.5	2.4	100
직업별					
미취업자	16.2	57.4	17.5	8.9	100
고용주	21.6	49.3	25.9	3.2	100
근로자	22.2	53.6	20.6	3.7	100
기 타	19.8	57.1	17.7	5.4	100
농축산임업	36.7	26.1	17.6	19.6	100
근로형태별					
생산직	24.7	53.9	16.3	5.1	100
사무직	21.1	53.5	22.3	3.1	100
월 가구 소득별					
100 만원미만	18.1	36.1	20.8	24.9	100
101~150 만원	16.8	54.9	18.1	10.2	100
151~200 만원	21.4	59.8	14.7	4.0	100
201~300 만원	17.2	60.4	20.8	1.6	100
300 만원이상	20.6	57.8	19.1	2.4	100
무응답	22.2	49.6			

<그림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요약 및 시사점

- 현재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그리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법정근로시간의 단축뿐만이 아닌 휴가·휴일의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조건들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약 75%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임금이나 휴가·휴일의 조정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드리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하고 있음.
 - 사안마다 약간의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어 가는 과정을 알면 알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주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논의 방향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는 근로자와 고용주들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으나 기대효과의 전망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동반되어 전체적인 휴가·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53.8%가 「찬성」, 33.1%는 「반대」, 13.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서 과반수 정도가 휴가·휴일제도의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직 또는 사무직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약 60%가 「찬성」의 응답을 보이며 취업지위별 구분에서 가장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44.8%가 찬성하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전체 임금 중 일부가 감소될 경우 국민들은 「무조건 찬성」

8.9%,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 33.5%의 응답을 보여 국민의 42.4%는 임금조정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가 34.3%로 임금삭감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할 의도가 있으나 임금삭감까지 감수하면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한편,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가 23%로 나타나, 다른 실태조사에서 약 7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모습과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직업별 분석에서 근로자들의 경우 11.5%가 「무조건 찬성」, 41.7%가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으로 나타나 총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의 입장차이가 이 부분에 있어 나타나는데, 「무조건 찬성」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11.3%, 사무직의 경우는 11.5%로 비슷한 반면,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생산직근로자 29.5%, 사무직근로자 4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마찬가지로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는 43.7%의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사무직근로자는 30.9%의 비중을 차지해서 위의 차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대기업과 금융산업과 같이 근로조건이 유리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33.6%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 분석에서 근로자들의 경우 66.5%가 단계별 도입에 대해 찬성의견을 보인 반면, 고용주는 55%가 반대의견을 보여 명백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 예상했던 대로 「삶의 질 향상」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25.9%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11.7%,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이 7.7% 등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하는 국민이 약 77%로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도 근로자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전체의 약 86.9%), 고용주들은 「좋은 기대효과가 없음」에 53.7%의 비중을 보여 여전히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사이에도 입장차이가 나타나는데, 사무직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이 무려 42.4%의 비중을 기록하고 부정적인 응답이 9.1%가 나온 반면, 생산직 근로자는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33.1%, 「삶의 질 향상」이 22.5%를 기록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이 22.4%가 나온 것으로 보아 생산직근로자보다는 사무직근로자가 주5일 근무제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같은 상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한 결과

-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가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이 70.1%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대세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확산되지 않을 것」은 11.3%, 「잘 모르겠음」은 6.0%로 나타남.)
- 직업별 분석에서도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반면 (「확산되지 않을 것」의 비중이 7.7%), 고용주들은 확산이 저지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확산되지 않을 것」의 비중이 31.9%).
- 이렇듯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극히 비효율적인 노동법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것이고 법개정없는 확산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실과 법 사이의 갈등이 커지게 될 것임.

○ 한편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향후 주5일 근무제가 노사교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 55.5%로 전체의 약 75%가 문제발생을 예상한 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 18.6%로 나타남.

- 의외로 근로자나 고용주들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고용주 70.9%, 근로자 75.8%).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중단하거나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비효율적인 법적용의 문제, 법과 현실과의 괴리 확대, 노사간의 갈등 발생, 근로조건 격차 확대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약 75~80%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V. 근로시간제도 개선에 관한 홍보

-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주5일 근무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그 동안 논의되었던 구체적인 사항들이 왜 타협하기가 어려웠는지의 원인과 입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편으로 파악됨.
 - 특히 근로자가 아닌 여성들의 경우 이번 개정이 소득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우려하는 모습이 보이며, 휴일의 증가가 다른 소비에 대한 비용증가의 원인이 될지를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쪽에 종사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 논의과정에 대해 잘 모를수록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더 많은 홍보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면 여론 조성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전해 듣는 내용은 주로 신문, 방송을 통한 매체(Media)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주요부분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 갈등에 의한 주장,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진행과정,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한 대응 등에 국한되어 있음.
 - 다시 말해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외국제도의 보편적 경향,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실상 등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파급되어 국민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와 견해가 형성된 후,
 -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쟁점,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한 비평 등을 접했어야 여론 형성이 제대로 될텐데,
 - 이런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크게 대두되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전체적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가 모자라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우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제도 개선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홍보 및 지식 전파 경로가 필요

- 각 인문 사회과학 학회에 대해 이러한 논의를 가질 수 있는 토론회를 열도록 요청하고, 이 토론회들이 객관적으로 폭넓은 관련부문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들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알려질 수 있어야 함.
- 방송을 통해 노사간의 갈등만을 대두시킬 것이 아니라 노사간 협력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또 그것이 기업에 도움이 된 성공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홍보(국정홍보처의 방송이나 출판도 도움이 되겠으나 공중파 방송이나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가 더 효과가 크게 나타남)
- 노사간의 갈등이 대립되는 토론회보다는 NGO 등의 단체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정부 관련공무원,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의 노사관계자 등의 패널을 갖춘 공청회나 토론회를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주선

○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성향은 부지런하고 지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 경쟁관계인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시간당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낮추던가 하는 방식의 경영이 필요함.
- 따라서 이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의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유추됨.

- 느슨한 근로시간 관리와 근로문화 :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이 어렵고, 오랜 시간 일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로 인식되며, 근로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고 승진 및 임금상승이 일어나지 못하는 연공제 임금체계가 보편화된 근로문화 속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 자본재 투자의 미비 : 결국 노동생산성은 1인당 산출량 또는 부가가치액으로 추정되고 이것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나 장비, 또는 어떤 시설에서 일하는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자본재 투자가 선진국보다 취약한 우리 기

업들의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러한 부분의 개선과 동반될 때 장단기적인 효과는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와 경영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임.
- 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러한 논리에 의한 홍보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사료됨.
- 정부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익단체의 반대에 대한 반박자료와 각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열거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 홍보 내용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만을 양산한다는 내용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득과 실을 모두 제시하고 긍정적인 효과의 극대화과 부정적인 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보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람직함.
 - 즉,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음.
- 여론 조사의 경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 업종별 자영업자, 업종 및 규모별 근로자, 업종별 고용주, 직종별 근로자 등)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도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면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각 기업과 개인에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봉하여 여론조사 설문지를 배포한다면 홍보와 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부 록>

주5일 근무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998년 2월 6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가·휴일제도의 개편 등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노사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정부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 설명부분을 먼저 읽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① 잘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모르겠다.
--------	---------	---------

2. 귀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개정안이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휴가·휴일제도의 개선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내용임을 알고 계신가요?

① 잘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모르겠다.
--------	---------	---------

3. 주5일 근무제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때 주당 법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생리휴가, 연월차 휴가 등 기타 휴가·휴일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이다	② 반대다	③ 잘 모르겠다
--------	-------	----------

4.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 중 일부 항목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임금 중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무조건 찬성이다	② 일부 임금감소가 있어도 찬성이다	③ 조금이라도 임금이 감소한다면 반대다	④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반대다
------------	---------------------	-----------------------	------------------

5.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대기업 및 금융보험업부터 실시하고 몇 년 뒤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	------	------

※ 기타 응답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귀하께서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효과 중에서 다음 중 어떤 효

과가 가장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②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 향상	③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	④ 문화 관광 등 여가 관련 산업의 발전
⑤ 좋은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⑥ 기타		

※ 기타 응답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도입에 실패하는 경우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하더라도 주5일 근무제는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될 것이다	②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확산될 것이다	③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④ 잘 모르겠다
--------------------------------------	-------------------------	---------------	----------

8.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도입에 실패하는 경우 노사교섭에 있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발생이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큰 문제가 될 것이다	②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다	③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④ 모르겠다.
---------------	-------------------	-----------------	---------

9. 응답자 일반 사항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세 미만 ② 20-29 ③ 30-39 ④ 40-49 ⑤ 50-59 ⑥ 60세 이상	근로여부	① 미취업자 (학생, 주부 포함) ② 고용주 ③ 근로자 ④ 기타 (자영업자, 특수직 종사자 등)
가구 소득수준 (월평균)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300만원 ⑤ 300만원 이상	근로자인 경우	① 생산직 ② 사무직
학 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이상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